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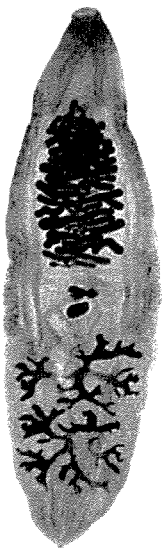
간흡충과 참굴큰입흡충

서민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기생충들을 모아놓고 제 1인자를 뽑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광절열두조충은 커다란 몸집을 내세워 자신이 최고라고 할테고, 말라리아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병원성이 최고 기생충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회충은 화려했던 과거를, 스파르가눔은 몸 어디든 갈 수 있는 기동성을, 요충은 높은 전파성을 내세우리라.

하지만 말라리아는 인류와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기생충의 정신에 어긋나며, 덩치가 크다고 훌륭한 학생이 아닌 것처럼 광절열두조충의 큰 덩치는 최고와는 별 상관 없다. 게다가 우등생보다는 개근상을 더 알아주는 풍토에서 회충이 지닌 화려한 역사는 별 의미가 없다. 덩치는 작지만 늘 한결같이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기생충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정 훌륭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 기생충 두 개를 소개한다.

5. 간흡충



1971년 54.9%, 1981년 13.0%, 1992년 0.3%가 회충의 성적표다. 십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욱 회충 보기가 힘들어졌다. 중국이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듯이,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훌륭한 기생충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 숫자는 되어야 하는 법, 0.3%의 수치로 최고 자리에 명함을 들이치는 건 무모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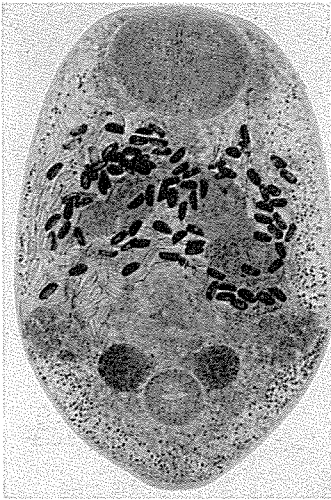
간흡충의 대변검사 성

적을 보자. 1971년 4.6%, 81년 2.6%, 92년 2.2%. 71년에는 전체 5위에 불과했지만, 76년 4위, 81년 3위, 86년 2위로 계속 상승하다 92년 대망의 1위에 올랐고, 그 이후에도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1위가 되기까지 감염률이 상승한 것도 아니다. 성실하게 2% 내외의 감염률을 유지하다 보니, 남들이 다 몰락해 버린 90년대 들어서 1등 기생충이 된 것이다.

간흡충은 사람에게 감염되면 담도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기도 하고 황달이나 소화불량처럼 증상을 나타내려면 최소한 200마리 이상이 감염되어야 한다. 잉어, 모래무지 같은 민물고기 회를 먹고 걸리는데, 물고기 한 마리에도 200개 이상의 간흡충 유충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그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흡충의 수명이 3-4년이고, 많게는 30년까지 사는 만큼, 민물회를 자주 먹다보면 결국에는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소주랑 먹으면 기생충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수가 더 높은 고량주와 같이 먹는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 민물회가 간흡충의 위험성을 감수할 만큼 맛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간흡충이 위에서 말한 증상들 외에 담석이나 담도암까지 유발하며, 치료한 뒤에도 망가진 담도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전처럼 맛있게 민물회를 먹지는 못할 것이다. 소주와 민물회를 드시면서 하루의 피곤함을 푸는 분들께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니, 그분들에게 번거롭지만 가끔씩은 대변검사를 하고 약을 드실 것을 권한다.

6. 참굴큰입흡충



1988년,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대변에서 처음 보는 기생충의 알이 발견되었다. 약을 먹인 후 환자의 대변으로부터 찾아낸 기생충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신종이었고, 환자가 살던 마을의 주민들 절반 가량이 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뭘 먹어서 걸릴까를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먹는 굴이다. 굴에 기생충이 있다? 생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할 일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나는 굴에만 이 기생충이 감염되어 있고, 대부분의 굴은 안전하다. 게다가 자연산이 아닌 양식이라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굴큰입흡충과 친척 관계에 있는 기생충들이 새의 기생충인지라,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철새 몇마리를 어렵게 붙잡아 조사한 결과 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참굴큰입흡충은 철새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 굴을 매개로 그 감염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든다. “얘네들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일까? 수십년간 이 기생충의 존재를 몰랐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플라톤 이후 사람들은 사물이 먼저 있고 우리가 그 사

물에 걸맞은 이름을 라벨처럼 갖다 붙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소쉬르는 이런 관념을 뒤집어 언어 이전에는 식별 가능한 사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위’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는 돌과 바위가 똑같이 ‘돌’이었다. ‘나비’와 ‘나방’은 우리나라에서 그 대접이 틀리지만, 이 둘을 모두 ‘빠빠웅’이라 부르는 프랑스에서는 동일한 곤충으로 여긴다. 이 기생충도 ‘참굴큰입흡충’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대변 쪼가리와 똑같은 존재였을 뿐이다. 그러니 이 기생충이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발견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며, ‘참굴큰입흡충’이라는 이름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이 기생충의 역사가 시작될 거다.

참굴큰입흡충이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까닭은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심지어 1만마리 이상 감염된 사람도 그다지 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크기가 1미리도 안되니 대변을 열심히 들여다 본다해도 찾기가 힘들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 몸 속에서 자식을 낳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기생충의 꿈이라고 한다면, 참굴큰입흡충은 오랜 기간 이상적인 기생충으로 잘 살아 온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군가가 환자 한명에게 췌장염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들은 모든 걸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

참굴큰입흡충이 유행하는 그 섬으로 기생충학자들이 몰려들었고, 시시때때로 대변검사와 치료가 시행되었다. 그로 인해 죽은 기생충의 수는 이루 셀 수도 없고, 그 지역 굴의 소비량이 줄어든 것도 그들에게는 위기다. 최근에는 소장 밖으로 나가 문제를 일으킨 증례까지 발견되었으니,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들의 평화정신이 의심받는 건 당연하다. 정말이지 미꾸라지 몇마리가 온 물을 흐렸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의 평화로운 시절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꿈이겠지만, 글썽다. 그러기에는 이미 늦은 게 아닌지. 